

기독교상담자의 정체성과 딜레마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김 경 미* 강 연 정**

국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상담자가 경험하는 정체성과 딜레마에 관한 질적 연구로, 기독교상담자를 위한 전략적 지원과 정책 수립에 대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10년 이상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상담대학원에서 석사 이상을 취득하였으며, 현재 현장에서 기독교상담을 3년 이상 진행하고 있는 기독교상담자 20명을 대상으로 내러티브 탐구를 진행한 자료를 질적 분석 프로그램인 NVivo11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정체성과 딜레마에 대한 연구는 각각 학문적, 실제적, 개인적 영역의 세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먼저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첫째, 기독교상담의 전문성 확보의 요구, 둘째, 기독교상담 현장의 확대 필요성, 셋째, 기독교상담자의 개인적 정체성 정립에 대한 논의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다음 딜레마와 관련해서는 첫째, 초기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신앙과 상담의 통합을 시도, 둘째, 개인적, 학문적, 임상적 영역에서 딜레마 경험, 셋째, 기독교상담에 대한 타인의 인식에 의해 부정적 정체성이 형성되고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독교상담자의 정체성과 딜레마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와 기독교상담자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기독교상담자, 정체성, 딜레마, 통합, 내러티브 탐구

• 논문 투고일: 2018년 3월 30일

• 논문 수정일: 2018년 4월 27일

• 게재 확정일: 2018년 5월 2일

*고신대학교

**고신대학교

• 본 연구는 고신대학교 김경미의 박사학위 논문(2018년 2월, 지도교수: 강연정)을 요약·재구성한 논문임.

I. 여는 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과 문화적 영향력이 괄목할만한 위치에 있지만 급격한 사회구조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인간관계 단절에서 오는 정서적 친밀감 상실과 진정한 자기 정체감의 상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위기를 갖게 되었으며, 이로써 더욱 전문적 상담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한재희, 2006). 상담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급증에 따라 한국 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등의 우수한 학회들이 활동하고 있고, 대학 원이나 일반 상담기관에서도 상담자의 교육과 훈련을 다양하고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최윤경, 2003). 기독교 진영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한국에 많은 기독교상담대학원이 설립되어 있고,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등이 크게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상담과 기독교상담자들에 관한 연구는 점점 중요도를 더하고 있다.

기독교상담은 교회의 역사와 함께 2000년 전부터 이미 ‘영혼 돌봄’의 차원에서 풍성한 심리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신(新) 심리학이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인해 영혼 돌봄의 중요한 자리를 내어주어야 될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현대 심리학은 새로운 실험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정교한 이론과 놀라운 실험 결과물들을 축적하였고, 현대 지성인들에게 다른 세계관보다 훨씬 과학적임을 표방함으로써 상담영역뿐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위기를 초래하였다(Johnson, 2012). Gary R. Collins(2008: 35-36)는 “의학, 교육, 설교 그리고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처럼, 기독교상담자들도 비기독교인들이 발달시킨 기술들을 사용한다. 우리가 상담에 관련된 문제들과 효율적인 방법들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비기독교 사회에서 만들어진 연구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실제로 기독교상담 교육기관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훈련되고 배출된 많은 기독교상담자가 기독교상담기관뿐 아니라 비기독교상담기관

과 다양한 지역사회의 현장에 관여하면서 그들의 고유한 역할과 가치에 관한 정체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김수연, 2008).

한국의 기독교상담은 한국교회의 성장과 함께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눈에 띄는 발전과 성장을 보여 왔으며, 최근까지도 많은 기독교상담대학원이 설립되고 기독교상담에 관한 관심과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상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독교상담자들의 근무여건이나 직업적 안정성은 여타 직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다. 직업인으로서 상담자는 고학력인데 비하여 낮은 임금과 부족한 정규직의 기회 등 안정된 사회경제적 위치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일해야 하는 직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수의 상담자들이 절망적인 무력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상담자는 상담개입의 결과에 따라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높은 스트레스 및 심리적 소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권오현, 2016).

하지만 상담자에 관한 연구들로는, 단지 상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조건들이 무엇인지 또한 상담자의 어떤 변인들이 치료적인 관계 수립에 도움이 되는가의 위주로 논의가 있어왔고,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상담자에게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Skovholt와 Rønnestad(1992)의 상담사의 발달 모델에 관한 연구와 기독교상담자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신앙 영역의 발달이 연구되고 있다(안현미, 2013).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상담자들의 전문성 발달이나 정체성의 발달 및 교육, 정체성 형성 요인,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기독교상담자가 경험하는 내부적 관점에서의 정체성과 딜레마 자체에 집중하는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하며 딜레마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러티브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독교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딜레마에 관련하여 개인적, 실

제적, 학문적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인간 경험의 근본적인 구조를 다루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기독교 상담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담는 과정에서, 처음 기독교상담자가 되기 위한 동기와 소명 등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또한 상담 현장에서 경험하는 딜레마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기독교상담자로서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기독교상담자들의 정체성과 딜레마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기독교상담자들의 교육과 재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및 전략 수립에 유용하고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후속 연구를 촉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펴는 글

1. 이론적 배경

1) 기독교상담

오늘날 기독교상담 분야는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아직 명확히 정립이 되지 못하고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김용태, 2006). 기독교상담은 기독교상담자가 가진 신학적 성향과 심리학적 입장에 따라서 상담의 성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각자의 상담의 목표와 기본 전제, 그리고 상담이론과 상담기법 등에 따른 차이가 다소 있지만 다같이 '기독교상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신학이나 성경에 근거하여서 상담을 진행하는 기독교상담자가 있는가 하면, 일반상담이론에 몇몇 성경 구절을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상담 시작과 끝에 기도하는 것만으로 기독교상담이라고 생각

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상담 과정에서 영적 자원을 활용하지는 않지만 상담자의 세계관이나 기본적인 태도가 철저히 기독교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독교상담이라고도 한다. Millard J. Sall(2000: 175)은 “성경과 심리학의 조화의 여부는 오늘날 기독교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절실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신학과 심리학의 관계성은 최근 들어 기독교상담학의 분야에서 증가되고 있는 논란의 주제이며 이는 기독교상담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기독교상담에 대해 대표적인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Jay E. Adams(1981)는 기독교상담은 성령의 중생하게 하시는 사역과 성화시키는 사역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였고, Lawrence J. Crabb(1977)은 내담자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봉사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도록 권면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내담자가 하나님의 뜻에 점차적인 순종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Collins(2003)는 성경을 출발점으로 하는 상담으로, 내담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사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일상생활에서 더 효과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성경과 심리학적 방법을 동원한다고 하였다. 지금도 일반 상담자와 구별되는 기독교상담자의 특징은 무엇인지, 기독교상담의 독특하고 효과적 방법론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계속 제기되고 연구되고 있다.

2) 기독교상담자의 정체성과 딜레마

기독교상담자가 기독교상담에 대한 정체성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더라도 비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해 나갈 수도 있으며, 그런 식으로 진행된 상담의 결과가 바람직하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독교상담이라고 할 수는 없다. 때로는 기독교상담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심리학적 기법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도 인식하지 못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기독교상담자가 진정으로 기독교상담을 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상담인지 딜레마에 부딪히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상담자가 기독교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거나 아직 기독교상담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고, 또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돌보는 일은 삶 속에서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인류 역사를 통해 기회만 주어진다면 삶의 문제에 고통 받고 있는 타인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왔고, 그중 하나가 상담자이다(Egan, 2003). 특히 기독교상담자는 더욱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기독교상담자들은 상담 하는 일을 단지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소명으로 받아들이며 사역의 확장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

Collins(1996)는 기독교상담자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헌신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기술, 통찰력을 타인을 돕는 일에 적용하여, 그들이 온전해지도록 도와주며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갖게 해 주고 정신적인 안정과 영적 성숙을 이루어 나가도록 돕는 사람이라고 하였고, 이관직(2007: 36)은 기독교상담자에 대해서 “현대 임상 심리와 상담 심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동시에 기독교적인 신관과 인간관, 세계관을 가지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들 혹은 시스템들에게 치료적인 맥락 속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였다. 개인의 정체성은 자신에 대한 지각이며, 타인에 대해 어떤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가를 말한다. 정체성이 일관적이 되며 통합적인 자기에 대한 개념으로 발달해 갈수록 이에 따른 개인의 역할 수행도 더욱 안정적이 된다(Ibarra, 2002; Côté & Levine, 1987; 정지희, 2014, 재인용). 상

담자의 정체성은 개인적인 자아와 치료적 자아가 공존하는 독특한 개인 혼합체로서 발달되며(Skovholt & Rønnestad, 1992), 상담 관계 속에서 타인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이고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Blocher, Tennyson & Johnson, 1963).

딜레마(dilemma)라는 용어는 선택이나 의사결정의 문제와 관련된 용어로, 만족스럽지 않은 양자 혹은 그 이상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딜레마란 행위자가 두 가지 이상의 선택을 해야 할 문제에 대하여 모두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한 가지를 택해야 하지만 최선의 방법이나 적절한 반응이 불확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J. L. Maes(1988)는 기독교상담자들이 신학적·심리학적인 지식을 모두 지니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양자 간의 대화의 접촉 능력이 매우 결여되어 있기에 정체성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대다수의 기독교상담자들이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성찰, 자아 통합, 영성 훈련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Maes의 지적처럼 실제적으로 신학과 심리학의 각 영역에 구체적인 지식을 갖추고 훈련되었다 할지라도 두 영역을 조화롭게 연계함을 통한 정체성의 확립이 불분명할 때 딜레마를 경험하게 된다. 기독교상담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기란 단순하지 않아서 이은규(2006: 46)는 “일반상담과 기독교상담의 차이는 분명하지만 기독교상담 사이에서도 심리학에 대한 일치성이 없다. 때문에 기독교상담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란 힘들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독교상담이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이란 문제와 씨름하게 된다면 기독교상담의 정체성은 요원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기독교상담자의 딜레마는 대부분 통합의 문제에서 온다고 볼 수 있고, 학문적 영역, 실제적 영역, 개인적 영역의 딜레마로 요약될 수 있다(김용태, 2006).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를 적용하였다. 질적 연구는 연구자가 미리 설정해 놓은 가설이나 이론으로 현장을 개념화시키거나 설명하기보다는 내부자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행위하고 있는지를 찾고 기술한다. 연구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이나 현상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하므로 폭보다는 깊이를 강조한다(Creswell, 2007).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자신의 삶을 형성해가며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해석하는데, 이야기는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며 이러한 관문에 의해 세상에 대한 그들의 경험이 해석되고 개인적 경험의 의미가 만들어지며, 내러티브 탐구는 이 경험들을 이야기로 탐구하는 것이다(Connelly & Clandinin, 2006). 즉,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경험은 이야기로 말하는 것을 통해 자신이 혹은 다른 사람이 누구인가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러티브 탐구는 과학적 일반화보다는 그들의 일상생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기술하는데 초점을 둬므로, 연구대상의 일상적인 행동과 개념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하며 그들의 경험세계와 의미세계의 연속성과 고유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의미를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세계 속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 선정은 연구자가 연구주제와 목적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되는 대상자를 직접 모집하는 목적적 표준 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면담대상의 선정 기준은

첫째, 10년 이상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둘째, 대학원에서 기독교상담을 전공한 석사 학위 취득자, 박사 과정
생, 박사 수료자, 박사 학위 취득자이면서

셋째, 심리 상담을 3년 이상 진행하고 있는 기독교상담자이다.

참여인원은 20명으로, 일반적으로 내러티브 탐구는 소수의 대
상자의 이야기를 담아내지만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소 많은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2) 연구 절차 및 분석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최종 승인을 통보 받은 2017년 6월에서 9
월까지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 20명에게 1-7회기 면담을 하였
는데, 횡수를 정하지 않고 새로운 자료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 자료가 포
화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기까지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시간은 총 58
회기로 51시간(3,060분)이고, 전사한 내용의 분량은 A4지 736매이며 활
동지와 연구 노트, 메모 등을 합한 총 매수는 842매로 1인 평균 42.15매
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질적 자료 분석과정에서 탈피하여
최근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질적 자료 분석 프로그램인 NVivo11을
활용하였다.

면담질문지는 개인영역, 신앙영역, 전문영역, 종합영역의 4개의 영역
으로 구성하였다. 질적 접근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질적 연구 분석 단
계인 ‘원자료의 전사’ → ‘코딩 및 분석’ → ‘주제의 발견’의 순서로 정
리되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NVivo를 통한 코딩 및 분석 작업이 진행되
었다. 참여자들의 면담 전사내용을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를 뽑아내는
식으로 줄 단위 또는 문단 단위로 읽으면서 지속적인 질문을 하고 비교
분석의 절차를 통하여 밝혀진 각 참여자들의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에 이
름을 붙이고 유사한 이야기끼리 묶어서 좀 더 추상화하여서 범주화시킨

결과를 풀어내었다. NVivo를 통한 코딩 및 분석을 적용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기독교상담자들이 경험하는 정체성, 딜레마가 크게 '나'에 대한 내러티브, 정체성에 대한 내러티브, 딜레마에 대한 내러티브, 참 기독교상담에 대한 내러티브의 4가지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하위요소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주제의 도출은 노드의 빈도수에 의하여 도출되어진 내용으로, 현장의 의미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로 해석되어진 것이다.

3. 연구 결과

1) 주제별 네 가지 내러티브

NVivo11을 통한 코딩 및 분석을 적용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기독교상담자들이 경험하는 정체성, 딜레마가 크게 '나'에 대한 내러티브, 정체성에 대한 내러티브, 딜레마에 대한 내러티브, 참 기독교상담에 대한 내러티브의 4개의 범주와 17개의 주요 영역, 54개의 하위 영역으로 도출되었다. 이 결과는 현장에서 의미 있는 내용과 주제가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하여주고, 현장지향적인 의미를 끄집어내어 기독교상담자들의 정체성과 딜레마를 생생하게 전달해준다.

(1) '나'에 대한 내러티브

〈표 1〉 NVivo로 분류한 4 범주 중 '나'에 대한 내러티브

범주	주요 영역	하위 영역	코딩수
'나'에 대한 내러티브	나는 누구일까	"who am I" : 그림검사 통한 자기인식	20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 기독교상담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	23
	상담입문동기	"늘 애써도 느껴지는 한계" : 자신을 알아보고	12
		"소명으로 달려가는 거죠" : 사역의 일부	42

‘나’에 대한 내러티브	상담입문동기	“제대로 알고 제대로 돕고 싶다” : 유능한 상담자가 되고 싶어서	47
		“내가 상담해줘야겠다” : 상담 받은 경험의 영향	19
		“한계, 전환점, 돌파구” : 삶의 돌파구가 필요해서	13
		“세계관을 버릴 수 가 없어서” : 기독교상담 선택 동기	10
	개인 삶의 경험들	“이중격투기 같은 부모님 싸움” : 가족 간의 경험들	21
		“예수님을 만나게 한 왕따 경험” : 사회적 경험들	11
	내가 되고 싶은 상담자	“두 개의 날을 가진 따뜻한 직면” : 롤모델	31
		“엄마, 언니 같은, 날카로운 타자기 같은” : 이런 상담사로 불리고 싶다.	39

나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모습, 기독교상담자로서 나의 역할에 대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독교상담의 입문 동기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심과 소명의 연장선에서 사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성장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들도 기독교상담자가 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따뜻한 직면을 할 수 있는 롤모델을 따라 따뜻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기독교상담자가 되고 싶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저는 강물 같은 나? 인생을 그냥 흘러가는 강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물은 형태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또 눈물 난다... 이 흐르는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데 흘러가다 보면 여러 상황을 만나지만 멈추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을 포용하며 바다로 갔을 때 그 때는 ‘완성된 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날인 거예요.”(참여자 5)

“성도들의 필요는 너무 많은데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나면 그때는 힘을 얻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다시 본래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한계가 느껴지고 아까징끼만 받

라주고 오는 느낌이에요. 아까징기 발라주는 게 아쉬워가지고.. 그러다가 전문적으로 상담을 배워야겠다는 마음이..”(참여자 15)

(2) 정체성에 대한 내러티브

〈표 2〉 NVivo로 분류한 4 범주 중 정체성에 대한 내러티브

범주	주요 영역	하위 영역	코딩수
정체성에 대한 내러티브	기독교상담이란	“입으로 정확히 내뱉어야” : 명시적 접근	38
		“상담자가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 암시적 접근	53
	기독교상담에 대한 인식	“일반은 넓고 기독교는 깊다” : 자신의 인식	41
		“햇바리 취급” :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인식	27
	통합의 기준과 인식	“정확하게 필터링이 됐는지..” : 이론과 다른 현장	32
		“전제가 다르다” : 나눔의 무의미	17
		“내담자와 현장에 따라서..” : 이론과 실체가 다른 이유	26
	발달을 위한 노력과 변화	“교육중독자” : 전문성 발달을 위한 노력	46
		“자발적 광야 속으로” : 영성 발달을 위한 노력	41
		“벽에 부딪힌다 생각될 때” : 상담의 한계에 부딪힐 때	28

기독교상담의 정의에서 기독교상담자는 상담에서 명확히 기독교상담임을 표방해야된다는 입장과 암시적으로 기독교세계관을 기저에 깔고 가면 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졌다. 나름대로 일반상담자와는 다른 기독교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 전문성발달뿐 아니라 영성 발달에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지만 기독교상담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정의내리는 것에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상담자로서 실제로 기독교상담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방법과 자신의 기독교상담과 심리학의 통합 기준에 관련하여서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하

였고, 상담현장에서 한계에 부딪힐수록 기독교상담이 무엇일까에 대한 길을 찾으려는 질문들을 하고 있었다.

“개인적인 화두가 기독교상담자의 정체성이 되었죠. 기독교상담의 정의가 무엇이고 기독교상담자들의 정체성이 도대체 뭘까.. 계속 퀘스천마크가 주어지는 거예요. (중략) 공통분모는 기독교상담자고 기독교상담을 공부하거나 했던 사람들인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기독교상담이 일반상담하고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 수업에서 배운 것 외에 현장에서 내담자들을 만났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 건가? 기독교상담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담현장에 내담자들을 만날 때 상담의 구조화 과정에서 일반상담하고 다른 이게 기독교상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야? 특징? 정체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게 도대체 뭘까? 라는 질문들이 저도 계속 생기고 있고...”(참여자 20)

(3) 딜레마에 대한 내러티브

〈표 3〉 NVivo로 분류한 4 범주 중 딜레마에 대한 내러티브

범주	주요 영역	하위 영역	코딩수
딜레마에 대한 내러티브	개인내적 딜레마	“일과 섬김은 분리돼야 vs 무모하지만 이 길을” : 직업과 소명사이	73
		“한발만 담고 싶어요” : 신앙, 신앙공동체와의 어려움	45
	현장에서의 딜레마	“신앙의 색채가 달라요” : 기독교상담기관 현장의 어려움	70
		“정답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 일반상담기관 현장의 어려움	109
		“내 선까지만” : 딜레마가 없는 이유	43
		“높은 피로도” : 현실적 어려움	66
		“답답해서 반반으로” : 기독교상담기관 근무에 대한 의견	38

딜레마에 대한 내러티브	교육과정에서의 딜레마	“명확히 잡히는 게 없어요” : 신학적 베이스의 부족	27
		“기독교상담자로서의 도구는 뭘까” : 기독교상담만의 전문화	121
		“자격증은 어디다 쓰나요” : 자격증과 명칭	76
		“네트워크가 필요해요” : 기독교연구모임의 필요성	82
		“매뉴얼화 되었으면” : 기독교상담 접근의 틀 마련	53
	상급과정 진학을 통해 본 딜레마	“임팩트가 다르다” : 같은 기독교 과정 진학	29
		“똑같이 경쟁해서 인정받고 변화시켜라” : 기독교 석사에서 일반 박사로	43
		“분향으로 돌아가자” : 일반 석사에서 기독교 박사로	45
“배움의 고민” : 석사 졸업 후 진학 고민		34	

딜레마 범주 중 개인내적 영역에서는 살아가기 위한 현실적 필요에 의한 직업과 신앙인으로서의 소명 사이에서의 고민과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었다. 현장 영역에서는 일반상담 현장에서 경험하는 선입견과 편견에 의해서, 또한 기독교상담 현장에서는 신앙의 색채가 달라서 높은 피로도를 경험하고 있었다. 교육과정에서는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이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부족함을 호소하였다. 내부적으로 기독교상담만의 구조화나 전문화의 부족, 축적되어진 지식과 경험의 매뉴얼화 등의 실제적인 필요가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학교, 학회, 교회 등 관련 기관 간, 기독교상담자들 개인 간의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요청되었고, 기독교상담 관련 자격증은 취득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현장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상급과정 진학을 결정할 때, 일반상담현장에서 겪는 정체성 문제와 갈등으로 인해 기독교학교를 선택하는 경우와, 일반상담현장에서 겪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 일반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있었다.

“목표를 (일반)내담자에게 맞췄을 때는 왠지 모를 죄책감? 이런 걸 느끼고.. 기독교적인 방향으로 약간 틀었을 때는 내담자는 이게 수용이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적이지 않은 걸 잡아도 이렇게 해도 되나? 기독교적인 걸 잡아도 이렇게 해도 되나?”(참여자 7)

“상담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평신도 사역자로.. 근데 교회에서 수용을 안 해요. 목사님들이 자기들도 목회상담을 하는데 평신도가 상담을 한다 하니깐 못 받아들이는.. 왜냐하면 내가 평신도였을 경우에 목사님들이 ‘제대로 뭘 하겠나.. 신학도 안했는데..’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면 신학을 하는 게 권위가.. 특히 남자상담자라 더 그래요. 일반심리센터를 하면 상담자격증 자체가 권위인데, 교회에서는 인본주의다 또 이런 배척을 받는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중에서 또 그런 식으로”(참여자 1)

(4) 참 기독교상담에 대한 내러티브

<표 4> NVivo로 분류한 4 범주 중 참기독교상담에 대한 내러티브

범주	주요 영역	하위 영역	코딩수
참 기독교 상담에 대한 내러티브	미래 전망	“흐리나 맑은” : 현실로는 어렵고 소명으로는 긍정적	52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 어둡다	44
	우리가 해야 할 일	“영성이 대세인데 판세를 바꿔야 해요” : 자부심을 형성시키자	34
		“일당 백” : 실력을 기르자	57
	그래도 나의 꿈은	“지역을 섬기는 기독교상담 센터” : 기독교상담을 표방하는 센터	53
		“지금은 임상 중” : 교회를 돕는 꿈	48
		“교육도 좋아요” : 교육	40
		“이렇게 슬픈 인생들이 있나요” : 포커스 대상 상담	31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나만이 갈수 있는 오솔길” : 자신만의 색깔	23
		“쓰시기에 좋은 질그릇” : 영성	47

범주	주요 영역	하위 영역	코딩수
참 기독교 상담에 대한 내러티브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마음 점검부터” : 인성	38
		“정상에서 만나자꾸나” : 실력	40
		“간하지 말고 다 경험해보라” : 다양한 경험	32
	면담 소감	“허심탄회한 이야기 처음 해봐요” :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	11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 정체성 재정리	23
		“방향성이 있었네?” : 긍정적 자기인식	19

현재 상황이 녹록치 않고 미래전망이 결코 밝지는 않지만 소명으로 여기며 영적 시야를 가지고 참 기독교상담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영성이 대세이므로 기독교 상담자가 더 폭넓게 활동할 수 있는 장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각자의 특화된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독교상담이 결국 정답이고 진리라는 그걸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정답을, 진리를 포기하거나 왜곡시키면 안 되잖아요. 지금이 어려울지라도 나중에 가면 정답은 나오잖아요. 정답은 보이고 진리는 빛을 발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 같이 힘써서 가면 좋겠어요.”(참여자 11)

2)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

본 연구는 기독교상담자의 정체성과 딜레마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수행을 통해 주제를 다면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상담자의 정체성과 딜레마를 3수준으로 구분하여 본다면 개인내적 수준, 상담현장의 수준, 그리고 학문과정의 수준의 맥락으로 구성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김용태(2006)가 통합에 있어 기독교 상담의 영역은 학문적 영역, 실제적(임상적) 영역, 개인적 영역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향후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1) 개인적 영역

첫째, 직업과 소명에 대한 영역에서 소명 받은 전문인으로서의 정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느 쪽으로 인식하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은 기독교상담이 직업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봉사로 섬기면 좋겠지만'이란 의미의 말을 덧붙이는 참여자가 많았고, 소명이라고 표현하는 참여자들도 현실적 필요를 가지고 있지만 믿음으로 생각하여 현실적인 계산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었다. 상담을 사역적 측면으로 접근할 때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직업 측면에서 접근할 때는 헌신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느껴져 불편한 마음이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 딜레마로 인해 소진되지 않도록 소명과 직업을 가진 전문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도 향후 교육되어야 할 영역이다.

둘째, 이분법적 사고의 해결을 위한 방안의 제시이다. 기독교상담자로서 독특성을 강조하다 보면 일반상담과 차별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두 영역에 대해 이분법적 관점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자연에 대립하는 은총이 아닌 자연을 관통하는 은총(*gratia in naturam*)의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 상담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은총이 자연의 깊숙한 내면까지 침투하여 자연 자체를 변화시키고, 치료할 뿐 아니라 회복시켜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러지도록 하여 자연을 변혁하는 은총을 상담의 영역에서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셋째, 기독교상담자 개인의 신앙 상태의 어려움이나 상담에서의 스트레스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개인의 신앙 상태나 신앙공동체와의 관계가 간접적으로 상담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반대로 상담에서의 소진과 좌절 경험, 스트레스, 정서적 어려움 등이 신앙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개인 내적 딜레마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비슷한 경험을 하는 기독교상담자들 간의 편안한 교류나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넷째, 기독교상담자의 발달단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다. 상담자의 발달단계에 대한 연구는 John Fleming 모형, Richard Hogan 모형, Skovholt & Rønnestad 모형 등의 다양한 모형이 있으나, 기독교상담자의 발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김미경(2005)이 슈퍼비전이 기독교상담자 발달과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 이론적 접근에서 기독교상담자의 발달과정을 전문성 지향의 성장형, 인성 지향의 성장형, 영성 지향의 성장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나, 발달 단계로 시도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기독교상담자로서 발달과정상 나타날 수 있는 과업에 대한 개인 내적 고민들을 단계별로 연구하고 정리함으로써 기독교상담자들이 각 단계에서의 과업을 달성하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적절한 발달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2) 실제적 영역

첫째, 기독교상담자에 대한 교회의 인식개선을 위한 요구이다. 기독교상담자가 교회에서는 인본주의나 평신도라는 편견으로 제약이 있고, 전문가로서의 입지보다는 봉사자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기독교상담자들이 상담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헌신

을 할 수는 있지만 교회에서 헌신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일반 상담기관에서는 국가자격증이나 학회 자격증을 취득하면 상담전문가로서 인정받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지만 교회 관련 기관에서는 그 외 부가적인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남성 상담자의 경우 신학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독교상담 대학원에서 기독교적 상담의 기초를 갖추어 주고 기독교상담 관련 학회에서 훈련과정을 통과한 자에게 기독교상담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교회에서도 기독교상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인식개선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와 일반상담 기관에서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종교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전문성이 부족하다거나 편협하다는 인식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다수가 경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요청되었다. 일반 상담영역에서도 최근 영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기독교상담의 강점과 오랜 전통과 자원을 잘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인식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와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현실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높은 피로도를 경험하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가 기독교상담기관이나 센터를 설립하여 기독교상담자를 고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최근 교회에서도 상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또 상담의 필요성을 느껴 몇몇 대형교회는 자체 내에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 교회에서는 필요가 있어도 경제적인 면 등의 이유로 개별적으로 접근하기에 용이하지 않으므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독교상담 센터를 제안해 볼 수 있겠다. 교회 성도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음으로 외부 일반상담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상담에 노출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교회 자체 내에, 혹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독교상담센터를 설립하여 기독교상담자를 고용함으로써 기독교상담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회와 기독교상담자가 속한 대학이나 협회가 연계하여 풍부한 전문상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서 교회에 수준 높은 상담과 교육서비스, 컨설팅 등을 제공함으로써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의 보조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는 것이다. 또한 목회자, 선교사, 사모, PK, MK 등 전문 사역자들을 위한 전문상담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적 차원에서 진로 상담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 청소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독교상담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겠다. 또한 기독교 부부교육, 부모교육, 예비부모교육 등의 영역에서도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학교에 상담교사가 상주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상담사역자를 고용하는 방안이다. 찬양 담당 사역자처럼 상담사역자가 있어 상담영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면서 교회를 돕는 것이다. 상담사역자에게 상담을 받으면 문제 있는 성도처럼 보이므로 부정적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시도해보면서 개선해나간다면 충분히 전문적으로 교회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

(3) 학문적 영역

첫째, 신학과 상담학의 실제적인 학문간 통합이 요구된다. 이 통합의 요구는 오랫동안 있어왔으나 지금도 일반상담자와 차별화되기를 원하는 기독교상담자들이 일반상담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기독교적 필터링과 적용을 위해 신학적 베이스를 갖추고자 개인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학문 간의 통합을 통하여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토대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독교상담의 모형과 틀이 개발되어야 한다. 최근 기독교상담 진영에 많은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배출되어 학계와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만큼, 개별적인 노력에서 나아가

공동의 연구와 실험적 적용을 시도해 봄으로 이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독교상담 방법을 전문 과정으로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교육 하여서 현장에 실용화되도록 기독교상담의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셋째, 기독교상담 자격증의 위상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체 연구 참여자 가운데 일반상담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기독교상담대학원 박사과정으로 진학한 참여자 4명중 기독교상담 영역의 자격증이 필요해서 취득한 참여자는 아무도 없었다. 자격증의 취득시기가 거의 석사과정에 집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지만 일반상담자격증이 있으면 특별히 추가로 기독교상담 자격증이 사용되는 곳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독교상담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고 하면 기독교상담자들이 더 자부심을 가지고 상담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대학에서 교육과정 뿐 아니라 학회 혹은 협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기독교연구모임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학교를 졸업한 후 현장에서 겪게 되는 정체성의 문제와 딜레마의 해소, 성숙을 위한 모임이 필요함을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느끼고 있었다. 기독교기관 근무자와 일반기관 근무자들 모두가 경험하는 딜레마가 다양한데 그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해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기독교상담의 발전을 위하여 기독교상담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함께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통해 안으로는 사례회의나 슈퍼비전 그리고 기독교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등 공동 연구의 기회를 가지고, 밖으로는 체계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효과적인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등 기독교상담자들을 위한 영향력 확장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선경험자들의 노하우를 매뉴

얼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은 선경험자들의 노하우가 다양하게 전수될 수 있는데, 가능하다면 현장에서 시도해 본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들과 상담 장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은 교재의 집필, 활용할 수 있는 도구 등의 소개도 기대할 수 있겠다.

여섯째, 기독교상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교를 졸업 후 현장에서 활동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딜레마가 정체성으로 재정립되고 재통합되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개인적인 선택에 맡기기보다 역량 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재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Ⅲ. 닫는 글

본 연구는 20명의 기독교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내러티브 탐구이다. 기독교상담자로서 성장과정, 교육과정, 현장 경험과 미래 전망 등에 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기독교상담자로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정체성과 딜레마를 살펴본 후 개인적, 실제적, 학문적 영역에서의 논의를 하였다.

대부분의 기독교상담자에게 있어 상담 현장에서 기독교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가지는 것은 직업일 뿐 아니라 소명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자신을 찾는 내담자들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을 진행할 때, 일반적인 상담기법과 해결뿐 아니라 기독교적인 통합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딜레마를 겪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 나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통합을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 더 많은 딜레마를 겪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딜레마를 겪는 것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비록 편안하지 않은 외로운 싸움이지만 더 나

은 길을 모색하게 하는 과제이며 발달의 한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곤핍한 자를 도와줄 줄 알게 해주시며(사 50:4), 우리의 삶에서 겪는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또 다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고(고후 1:3-4) 기독교상담사로서의 역할을 전심으로 감당하게 하신다.

기독교상담자의 발달 초기에는 기존 전통적인 상담접근이 갖는 틀과 가치 충돌과 한계를 경험하나, 상담의 경험이 축적되어가면서 신앙과 상담의 통합을 위한 창의적인 시도들을 한다(안현미, 2013). 따라서 기독교상담자가 경험하는 고민들은 발달이 진행될수록 더욱 참 기독교상담자로 성숙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러한 성숙의 과정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기독교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나 현장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딜레마에 빠지게 될 때, 서로 위로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후배 기독교상담자들에게 미리 주어지는 현장의 목소리와 기도제목이 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기독교상담자들이 경험하는 정체성 문제와 딜레마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단지 개인의 고민거리가 아니라 더 성숙된 기독교상담자로서 발돋움하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각 개인의 문제를 넘어 서로 공유되는 공동의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기독교상담자들을 준비시키고 교육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이야기 된 영역을 토대로 양적 연구와 통합연구 그리고 기독교상담자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후속 연구를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강용원 (1993). 기독교상담의 독특성. *고신대학교 학생생활연구*, 8, 3-13.
- 권오현 (2016). 여성기독교상담자의 소명의식에 대한 실존적 특성. 백석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경 (2005). 슈퍼비전이 기독교상담자 발달과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경 (2008). 기독교상담자와 영성. *복음과 상담*, 11, 165-185.
- 김수연 (2006). 기독교상담자 훈련을 위한 자가상담의 활용. *복음과 상담*, 6, 61-87.
- 김영천, 이현철 (2017). *질적 연구: 열다섯 가지 접근*.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용태 (2006). *통합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상담학*. 서울: 학지사.
- 안현미 (2013). 상담자 발달에 신앙경험이 갖는 의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관직 (2007). *개혁주의 목회상담학*. 서울: 대서. 36.
- 이은규 (2006). 기독교상담의 정체성 교육에 관한 연구. *복음과 상담*, 6, 37-60.
- 이현철 (2013). 한국교회학교 교사들의 딜레마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개혁논총*, 28, 247-279.
- 정지희 (2014). 상담자의 자기효능감, 전문직 정체성, 성취목표, 수행수준의 관계. 건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윤경 (2003). 한국 상담자의 전문직 정체성과 전문 업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재희 (2006). *상담패러다임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아카데미.
- Adams, J. E. (1992). *목회상담학*(정정숙 역, *Competent to counsel*).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원전 1981 출판).
- Blocher, D. H., Tennyson, W. W., & Johnson, R. H. (1963). The dilemma of counselor ident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0(4), 344-349.
- Collins, G. R. (1996). 안보현 역. *기독교상담의 성경적 기초*(안보현 역, *The biblical basis of christian counseling for people helpers*). 서울: 생명의 말씀사. (원전 1993 출판).

- Collins, G. R. (2003). 기독교상담과 인간성장(정석환 역, *Helping people grow*). 파주: 한국학술정보. (원전 1980 출판).
- Collins, G. R. (2008). 뉴크리스천 카운슬링(한국기독교상담 · 심리치료학회 역, *Christian counseling*). 서울: 두란노. (원전 1988 출판). 35-36.
- Connelly, F. M., & Clandinin, D. J. (2006). Narrative inquiry. In Camilli, G. & P. Elmore (Eds.), *Handbook of complementary methods in education research* (pp. 375-385). Mahwah, NJ: Lawrence Erlbaum.
- Côté, J. E., & Levine, C. (1988).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ego identity status paradigm. *Developmental Review*, 8(2), 147-184.
- Crabb, L. J. (1977).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A model for helping caring christians become capable counselors*. Grand Rapids: Ministry Resources Library, Zondervan Publishing Company.
- Creswell, J. W. (2010).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2nd ed.)*: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서울: 학지사. (원전 2007 출판).
- Egan, G. (2003). 유능한 상담자(제석봉, 유계식 역, *The skilled helper*).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 2002 출판).
- Ibarra, H. (2002). How to stay stuck in the wrong career. *Harvard Business Review*, 80(12), 40-48.
- Johnson, L. E. (2012). 심리학과 기독교 어떤 관계인가(김찬영 역, *Psychology & christianity*).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2010 출판).
- Maes, J. L. (1998). Pastoral counseling: A crisis in identity, language and ethics. *The Danielsen Institute Newsletter*. Boston University, 1-2.
- Sall, M. J. (2000). 성경과 심리학의 조화(김양순 역, *Faith, psychology and christian maturity*). 서울: 생명의 말씀사. (원전 1982 출판). 175.
- Skovholt, T. M., & Rønnestad, M. H. (1992).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 505-515.

【 Abstract 】

A Narrative Inquiry for Identity and Dilemma of Christian Counselors

Kim, Kyung Mi & Kang, Yeon Jeong

Kosin University

This study is a qualitative inquiry into the identity and dilemmas that christian counselors usually go through and its purpose is to prepare alternatives for the strategic assistance and policy making for the sake of christian counselors. For this, narrative inquiry has been conducted on 20 christian counselors who have a faith for over 10 years and more than master's degree at christian counseling with over 3 years of field experience. The results analyzed using a qualitative analysis software NVivo11 are as follows. In details, the inquiry into the identity and dilemma is discussed in three points of view, respectively: an academic, practical and personal area. In relation to the identity, the first is demands for the secure professionalism in christian counseling. The second is more opportunities for it. The third is the discussion for the establishment of personal identity of christian counselors. In relation to dilemma, firstly christian counselors are trying to combine faith and counseling after they have overcome many dilemmas in the early stage of counseling. Secondly, they experience dilemmas in the same three areas. Finally, they experience dilemmas with the establishment of negative identity caused by others' understanding over the christian counseling. This study provides basic materials to understand their identity and dilemma and also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to support them.

Key words: Christian counselors, identity, dilemma, integration, narrative inquiry